

## 자유부인은 대학을 침공했는가?

### 토론

정비석(소설가)

황산덕(변호사, 전 법무장관)

백철(문학비평가)

### 사회 및 정리

황윤진(출판기획자)

### 진행

몽상토론 PD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대부분이 연재소설을 게재하고 있다. 이 연재의 역사는 근대문학 태동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근대소설의 효시인 국초 이인직의 《혈의 누》는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된 것이고, 본격적인 근대소설의 출발로 평가되는 춘원 이광수의 《무정》 역시 1917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근대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대》,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탁류》, 홍명희의 《임꺽정》 등의 작품도 연재소설이었다. 이런 점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여서 박경리의 《토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김주영의 《객주》 등 중요한 장편소설이 연재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됐다.

불거리기도, 읽을거리도 흔치 않던 시절 신문연재소설은 고단한 일상을 달래는 위안거리이자 보통사람들을 위한 문화생활 중 일부였다. 자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30년대부터 대중통속소설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신문연재소설은 점점 선정성과 외설의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꼽는다면 50년대 《자유부인》 파동, 70년대 ‘외설의 전성시대’를 장식한 정을병·이대원·허문영·조남사·이원수의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강안남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신문연재소설을 두고 창작의 자유와 윤리 문제를 다룬 《자유부인》 논쟁은, 이후 신문연재소설의 선정성이나 외설문제의 전례가 될 정도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법대교수 황산덕이 신문에 《자유부인》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의 글을 기고하며 시작된 이 지면 논쟁을 TV토론형식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다. 불거리기도 읽을거리도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 신문연재소설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음미해볼 직하다.

### 몽상PD

날도 추운데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정비석 선생님, 황산덕 선생님, 백철 선생님 세 분께서는 모두 참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회포를 나누고 싶으시겠지만, 세 분을 모시느라 스파임 머신(Spime-Machine: 시간과 공간을 통합시키는 가변기)을 임대했는데, 사용료가 인공위성통신료보다 곱절은 비싸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 질문도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전과 다른 말씀을 하셔도 저 옆에 앉은 구성작가가 편집해버리니까 굳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 잘 달아주시고 카메라 의식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 사회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국사회는 전쟁후유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분단과 안보논리가 뒷받침된 권력층은 부패하고, 해외 참전 군인들을 통해 유입된 외래사조가 만연하는 등 미증유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여성을 농락한 박인수 사건이나 ‘양궁주’의 득세처럼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성도덕의 문란과 전통 윤리관의 붕괴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문학은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정비석 선생님의 《자유부인》입니다. 50년이나 흐른 오늘날에는 이 작품을 모르거나 읽어본 적이 없는 시청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부인》은 대학교수로 한글학자인 장태연과 그의 부인인 오선영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동창모임인 화교회에 나갔다가 자신의 초라한 삶을 되돌아보며 불쾌한 기분에 젖어든 오선영은, 올케의 제의로 취직할 것을 결심하고 파리양행의 점원이 됩니다. 옆집 대학생인 신춘호는 조카딸 오명옥의 남자친구로 노골적으로 오선영에게 접근하고, 오선영 역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댄스를 배우게 됩니다. 파리양행에서 사업수완을 발휘하던 오선영은 백광진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한편 장 교수는 한글강습회를 부탁한 박은미라는 젊은 처녀에게 연정을 품게 되고요, 허영심 많은 오선영은 점점 집박 세상으로 나돌다 결국 백광진으로부터 부도수표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 일을 겪고 가정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학교수 부인의 사랑과 성 문제, 사회 정치적 혼란, 상류층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논란의 핵이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요, 황산덕 선생님께서 여기에 반박을 해오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鄭飛石 정비석

1911. 5. 21-1991. 10. 19 | 1932년 일본 니혼대학 문과를 중퇴했다. 1935년 〈동아일보〉에 〈여인의 상〉·〈저 언덕길〉 등의 시를 발표했으나, 1936년 소설로 전향해 단편 〈졸곡제(卒哭祭)〉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했다. 이듬해 단편 〈성황당(城隍堂)〉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본격적으로 등단했으며, 이후 〈애증도(愛憎道)〉·〈자매(姊妹)〉·〈제신제(諸神祭)〉 등을 발표했다. 1943년 4월 〈국민문학〉의 “국경”이라는 수필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 이 내 나라 일본밖에 (...) 이 지구상의 단 한 곳의 낙원 (...) 조국 일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일본인화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본령은 8·15광복 후의 연재소설 〈파계승(破戒僧)〉·〈호색가(好色家)의 고백〉 등 일련의 애욕세계를 거쳐 1954년 《자유부인(自由夫人)》에 이르러 대중소설 작가의 위치를 굳혔다. 1984년에는 《소설 손자병법》을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 《청춘산맥》(1949)·《여성전선(女性戰線)》(1951)·《홍길동전》(1953)·《산유화(山有花)》(1954)·《아래향(夜來香)》(1957)·《여성의 적(敵)》(1960)·수필집 〈비석(飛石)과 금강산의 대화〉(1963)·《여인백경(女人百景)》 등 수십 권에 달한다.

## 황산덕

어찌된 일인지 요사이 대학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정비석 선생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목소리가 매일 들려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교수가 불우한 족속들 중 하나라는 것을 정 선생도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 선생에 앞서 화제가 된 김모씨는《나는 너를 싫어한다》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작품의 대상자는 당당한 고관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고관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공명하는 바가 되어 이를 테면 성공적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비석 선생이 망신을 주고 있는 저희 대학교수들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정 선생의 작품은 대학교수를 양공주 앞에 굴복시키고 대학교수 부인을 대학생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 선생이 논쟁이 되는 작품을 써서 김모씨와 같은 센세이션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유명해지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우한 처지에 있으니 기운을 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마정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써 가면서 대학교수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수억 인의 원성을 개의치 않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던 스탈린의 흉내를 내면서 수백 명의 대학교수와 수천 명의 그 가족과 수만 명의 대학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의 비난쯤은 문제도 아니라는 배짱입니까. 배짱도 좋고 예술도 좋으나, 선생의 대작《홍길동전》을 읽는 수십만 중학생을 생각해서라도 대학교수를 사회적으로 모욕하는 무의미한 소설만은 쓰지 말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54. 3. 1](#)

## 사회

소설로 인해 대학교수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황산덕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비석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시죠.

## 정비석

스무 해 가까이 소설을 발표해오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아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비난의 거의 전부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사적 흥분에 불과합니다. 황 교수님은《자유부인》을 읽어도 보지 않고 뜬소문으로 스토리만 듣고서 저와 제 작품을 비난하시고, 게다가 연재를 중단하라고까지 하시는데, 정말이지 탈선적 폭언입니다. 참고로 소설에 나오는 박은미 양은 양공주가 아니라 미군부대 타이피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작품을 쓴다고 비난 아닌 비난을 하시는데, 문학가인 제게는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답지 못하게 감정적 흥분으로 일관된 비난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좀더 침착히, 좀더 냉정히, 좀더 성실한 학자적 태도로 작품을 음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반성해 보라’는 황 교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교수님께 반환합니다. 모

## 黃山德 황산덕

1917. 6. 18-1989. 10. 19 | 1941년 경성제국대학 법대를 졸업했고, 196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1976년 중국 등우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48년 고려대학교 정법대 부교수, 1952-1966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52-1989년 롬버니 불교학사회 총장, 1962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 1966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같은 해 법철학회 회장이 됐다. 1966-1974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1966-1971년 동대학법정대학장, 1973년 동대학 대학원장, 1974년 동대학 총장을 지냈다. 법무부장관, 1976년 문교부장관, 1980-1989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및 불교진흥원 이사장, 1985년 학술원 회원(법학)이 되었다. 국민훈장 동백장, 중국 대수경성훈장(大綬景星勳章),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법철학의 권위자로서의 역저 《법철학》을 비롯해 《현대법철학 입문》·《법철학 강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최근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쫓록 이제부터라도 《자유부인》을 애독해 주신다면 행심(幸甚)이겠습니다. [정비석, '탈선적 시비를 박함 - 자유부인 비난문을 읽고 황산덕 교수에게', 서울신문, 54. 3. 11](#)

## 황산덕

참 유감스러운 반박입니다. 저는 대학을 침략한 선생님의 작품에 항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의를 위해서는 작품의 몇 구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자유부인》이 전쟁하는 한국의 신문지상에 연재됨으로써 철없는 청소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더구나 근거 없이 대학의 위신과 그 대학에 의해 건설될 민족문화의 권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진정한 문학을 좀먹이고 문학에 대한 상식을 악화시키는 선생이야말로 ‘문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혀서 지속하고 유치한 에로작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 폭로 자체가 문학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문학정신이 그것으로 하여금 문학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욕 자체, 성적 흥분을 돋우는 표현 자체가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건만, 스무 해 동안이나 소설을 써오신 선생께서 이것조차도 모르셨습니까? 상대방의 진의를 들어서 반박하라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상대방의 진의는 쓸쩍 버리고 상대방의 말 한두 마디를 뒤집어 꾸며 가지고서 인신공격하는 욕설을 퍼붓다니, 이런 비신사적인 태도는 됩니까? [황산덕,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 항의에 대한 답변', 서울신문, 54. 3. 14](#)

## 사회

중공군이러니,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청석에서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순엽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홍순엽입니다. 정비석 선생이나 황산덕 선생 두 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만, 방청석에 앉아서 논쟁을 듣다 보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열띤 설전에 끼어든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불장난 같기는 합니다만, 학자가 그의 과학적 지성이 지침하는 방향에 따라 자유로이 학문적 저작을 할 수 있듯이 작가는 상상의 세계에서 양식이 명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붓대를 구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어떻습니까? 대학생의 범죄 사실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이 대학의 침략이 된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설 내용이 대학의 위신과 민족문화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황 선생의

## 白鐵 백철

1908. 3. 18-1985. 10. 13 | 본명 세철(世哲),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1931년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개벽사(開闢社) 편집부장을 거쳐 1940년 친일지였던 《매일신보》 학예부장으로 발탁돼 1943년 베이징 지사장으로 전근할 때까지 친일 언론활동과 문필활동을 했다. 1952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교수가 됐으며, 1955년 중앙대학교 문리대학장으로 초창돼 1973년까지 재직했다. 1962년 펜클럽 한국본부 회장에 피선됐다. 1964년 중앙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예술원 회원이 됐다. 1973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에 취임했다. 수 차례 국제펜클럽대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했으며 특히 제37회 펜클럽 서울대회 때는 대회장으로 활약하는 등 사회에 이바지한 바 크다. 대한민국예술원상·국민훈장 모란장·서울특별시문화상, 그리고 3·1문화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국문학전사(奎史)》·《신문학사조사(新文學思潮史)》·《한국문학의 이론》·《진리와 현실》 등의 저서가 있다.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품에도 윤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논쟁에도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정 선생에게 문학의 적이니 조국의 적이니 하는 낙인을 찍는 것은 과하다 싶습니다. 소설의 사회적 교화라는 측면을 따진다면 저 역시 정 선생의 작품에 불만이 적잖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학의 침략은 별개 문제입니다. 작가를 비평하면서, ‘중공군 50만의 침략에 맞먹는 조국의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의로 해석해봐도 지나치다 싶습니다. 지성인의 논쟁일수록 예의를 차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순엽, '자유부인 작가를 옹호할 -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를 읽고', 서울신문, 54. 3. 21**

## 사회

논쟁의 예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창작과 윤리는 늘 사회문화적으로 상충하기 마련인데요, 문학평론가이신 백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백철

저도 교수고, 문학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학비평이 제가 하는 일이고 또 황산덕 선생처럼 교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어찌 진행될까 관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선생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논쟁의 핵심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신문연재 소설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고 해도 《자유부인》을 둘러싼 정 작가와 황 교수의 의견차는, 문학과 일반사회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격동하는 현대기에는 문학과 사회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운명적인 수밖에 없는 데,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견지에서 더욱 대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문학에서도 모럴을 중요하게 여긴다지만 그것은 항상 사회적인 도덕에 반발하는 것이 그 성질이런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바이런·와일드·로렌스 같은 작가와 당시 사회와의 극렬한 대립은 특별한 경우라 치더라도, 우리 신문학에서는 춘원이 자유연애관을 제시하며 《젊은이의 꿈》이나 《무정》을 쓸 때는 어땠습니까? 유학자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같은 작가들 사이에서도 문학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등 당시 사회에 불려온 파장과 논란에 대해 익히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가 보들레르 등의 세기말의 시인과 작가를 부정하고 나선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도덕적인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백철, '문학과 사회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신문, 54. 3. 29**

## 정비석

사회적·도덕적인 입장과 문학의 충돌에 대해 로렌스나 보들레르의 경우, 그리고 춘원 선생님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저 역시 이 점에 공감합니다. 장편소설과 성 문제는 확연히 흥미로운 명제입

니다. 가령 같은 문학이라고 해도 단편소설에서는 성 문제를 도외시한 작품이 성립될 수 있으나 장편소설에 있어서는 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참다운 장편소설은 성 문제를 무시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비석, '장편소설과 성 문제', <문학> 22호, 50**

## 백철

물론 그 부분 역시 논의가 필요하겠고, 정 작가의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왜 하필 대학교수의 가정을 소재로 삼았나, 왜 신성한 대학을 침공하는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청소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가를 묻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시문학(赤是文學)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공격 성향이 다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커다란 붕괴의 시대를 그려내기 위해서 소재와 인물 설정에 있어서 작가가 유독 대학교수만을 제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 교수가 작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스탈린’이니 ‘중공군’이니 하면서 정치성을 띤 공세를 택한 것은 학자의 논쟁 태도로는 유감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황 교수의 지적대로 일반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부인》이라는 작품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문학비평의 입장을 세울 때 불안정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본격적인 문학작품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황 교수의 이의제기도 이 약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임의로 대학교수 가정을 소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소재와 작품과의 관계를 보면 문제가 다릅니다. 한번 인물을 설정하면 작가라고 해도 임의로 그것을 조종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인물은 그 환경과 성격의 필연성 위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 붕괴과정에서 모리배와 교수가 같은 전략의 길을 걸어본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 끌려들어 가는 동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대학교수가 타이피스트의 다리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나, 대학교수 부인과 학생을 그려내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재 중인 소설이니 속단은 이르겠지만, 작가의 정신이 엄격하다면 단순한 현상을 그리는 중간에서도 그 묘사 뒤의 엄숙한 작가의 눈을 느끼게 할 텐데, 《자유부인》에서는 그런 작가의 모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신문소설은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그 후진적인 대중취미에 신경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속한 작품으로 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 논쟁을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 신문소설의 재발견을 하게 되면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철, '문학과 사회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신문, 54. 3. 29**

## 사회

자, 백철 선생님께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정 선생님과 황 선생님의 논쟁을 정리하고 각각의 문제와 약점을 명쾌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 선생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자유부인》은 어떤 의도로 쓰시게 된 것입니까?

## 정비석

《자유부인》에 대한 제 근본적인 작의는 봉건주의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정적인 혼란상과 사회적인 부패상을 소설로 그려봄으로써 참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민주 혁명은 됐다 하더라도, 민주 정신을 제대로 체득한 사람은 별로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되려는 것인지, 자못 근심스러웠다. 일류 정치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오병헌 국회의원도 결국 따지고 보면 머리 정상배에 불과하고, 대학생 원효삼은 공부를 하는 대신에 교수의 사택을 심방하면서 성적표 개량 운동이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마누라조차 가정을 버리고 거리로 나돌아다니는 바람에 별별 해괴한 풍설까지 돌게 되니, 암만해도 모두가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 무슨 빌어먹을 민주 혁명이란 말인가” 하는 대목에서도 제 의도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석, 《자유부인》, 고려원, 1985

그러나 공산 진영에서 막대한 공작금을 받고 소설로 남한의 정체를 뒤집어엎을 음모를 하고 있다는 혐의로 특무대의 내사까지 당하게 되니, 허구의 산물인 소설을 가지고 작자를 것처럼 시달리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비석, '신문소설 작가의 비애', 《동아일보》, 64. 4. 29

## 사회

이 소설은 집필과정에서 많은 격려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작품 내용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취조가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문학평론의 휴지기라 할 수 있는 50년대 우리 문단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는 점, 이 논쟁으로 신문소설의 윤리성과 창작의 자유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창작의 의도와 ‘공산 진영’으로 오해를 산 점에 대해 황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 황산덕

후일담이지만 《자유부인》이 남편의 제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만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동에 대한 사회여론이야 어떻든 대학교수들은 파동의 결과에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학으로서의 소설과 대중소설은 구별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속적이고 아비한 대중소설이나 쓰면서 스스로 작가니 문학가니 하면서 으쓱대는 게 눈에 거슬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선입견으로 정비석 작가를 통속작가로 속단한 것은 확실히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유부인》 파동으로 문학계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신문윤리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파동 이후의 우리 사회는 정 작가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부패하고 말았으므로, 정 작가도 저도 닭 쫓던 개 모양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때때로 만나서 반가이 술잔을 나누며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이 사회의 되어가는 꼴에 대하여 일종의 허탈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황산덕, '자유부인 선통 회고', 《신동아》, 1965년. 8월

## 사회

그렇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결성된 뒤로는 신문연재소설도 윤리위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문연재소설의 윤리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부인》 논쟁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업적 황색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일부 신문들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세 분 선생님,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몽상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자유부인》

글쓴이 | 황윤진

1972년 미아리에서 태어났으며, 《선데이 서울》·《사상계》처럼 묶은 잡지를 모으는 것이 취미다. 현재 프리랜서 출판기획자로 일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